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로 출마하는 김경자입니다.

이번 선거 출마에 앞두고 임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임원이 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원은 전체 회원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회원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 보는 세심함, 또 내일처럼 소중하게 다루려는 배려와 공감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으로 시작한 저의 협회 참여는 교육위원, 전무이사, 투어 주식회사 이사 등의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협회의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고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골프 해설위원, 대학 겸임교수, 골프장 대표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협회 행정 이외에도 다수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발자취들은 협회 임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갖추고 속도를 유지하되 균형감을 잃지 않는 정책실현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협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저 스스로의 다짐과 믿음으로 입후보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협회는 1978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회원수가 3천여 명에 달하고, 정규대회의 경우 연간 30개 이상의 대회와 상금 약 320억원의 규모로 개최되면서 세계 3대 투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LPGA 대회는 모든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고 싶어하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해 가고 있는 협회의 정책과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그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워 졌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저의 경험들을 통해 협회 임원의 역할과 그 무게, 또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빛을 발 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세계 회원 여러분들을 대표해 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감, 균형감, 속도감,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첫째. 소통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 고 하신 전임회장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 있는 회원들의 애기와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또한 협회와 회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에 반목과 불신이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폰서와 언론, 사무국과도 원활하게 소통하여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LPGA가 더욱 빛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투어발전에 더욱 힘쓰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정규투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2부, 3부, 챔피언스 투어의 대회 수 및 투어 질 향상, 상금 증액에 더욱 힘쓰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대비를 통해 글로벌 NO.1 이 된다는 협회의 목표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셋째. 회원의 복리 후생과 교육에 힘쓰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임기 중에도 다양한 회원 복리 후생에 관심을 갖고 카테고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자기계발 니즈에 발맞춰 선진 교육 시스템을 접목 시키고, 좋은 교육 환경과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하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일 처리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각종 규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기금도 있고, 새 사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회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단합하게 할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단단하지만 구부러질줄 아는 연철과 같이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회원들만 생각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시는 마음과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봐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회원 여러분께 잠시 위임 받는 그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채찍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성명 : 김 경 자 (인)



KLPGA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